

역사 속의 한 장면



미국으로 망명했던 정치인 김대중의 귀국을 환영하던 시민들의 모습.(1985)

- 사진 경향신문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리며 기도합니다

사람은 '기억' 과 '전승' 의 존재입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꿈꾸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이것이 또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설립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에 <희망세상> 가족들과 함께 새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되새기고 시대의 기도를 반복하며 9월의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6·15남북공동선언 9주년 기념연설 발췌문

'행동하는 양심' 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독재정권이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 분들의 죽음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든지 양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인 줄을 알면서도 행동하면 무서우니까, 시끄러우니까, 손해 보니까 회피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 국민의 태도 때문에 의롭게 싸운 사람들이 죄 없이 세상을 뜨고 여러 가지 수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의롭게 싸운 사람들이 이룩한 민주주의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양심에 합당한 일입니까? 우리 모두 행동하는 양심으로 자유와 서민경제를 지키고,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지키는 일에 모두 들고 일어나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듭시다. (2009.6.11. 63빌딩)

김대중 전 대통령 안장식, 무덤축성과 부활신앙고백기도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사람은 흠에서 와서 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제 저희는 사랑하는 김대중 토마스 모어 전 대통령을 이곳 현충원에 묻습니다.

이곳 현충원은 반만년 우리 민족의 얼이 살아 숨쉬고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몸 바친 선열들, 민주주의와 자유, 민족의 일치와 화해를 위해 희생한 숭한 임명의 벗들과 젊은이들의 얼을 확인하는 거룩한 땅입니다.

한 삶을 오로지 민주주의 실현과 평화통일을 위해, 고통받는 이웃과 가난한 벗들을 위해 헌신한, 주님의 성실한 종 김대중 토마스 모어 전 대통령을 위해 마련한 이 무덤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에, 주 하느님, 강복하소서. 주님의 거룩한 천사들을 보내 시어 저희와 겨레 모두를 지켜주소서.

저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묻습니다.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 십자가의 길 제14처를 묵상하며 저희는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저희 마음에 묻습니다.

그리스도 친히 부활하신 것과 같이, 김 전 대통령도 주님의 은총으로 부활하여 우리와 함께 그리고 역사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해 주십시오.

'행동하는 양심',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진전한다' 는 고인의 귀한 가르침을 되새기며 저희 모두 정의를 실천하고 통일을 이룩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저희는 김 전 대통령을 큰 나무에 비유하며 칭송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렇게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분명 큰 나무입니다. 이에 저희는 이 순간 그 큰 나무를 지탱했던 땅속의 숭한 뿌리들, 임명의 모든 민족민주통일 동지들과 은인들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임명의 은인들과 희생자들을 기억하시어 이들 모두 주님의 은총 속에 영원히 살게 하소서.

이제는 유언이 된 김 전 대통령의 일기, 그리고 6·15공동

선언 9주년 기념식에서의 그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며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오직 민주주의 실현과 남북의 일치와 화해를 위해 고심했던 그 뜻을 저희 모두 마음에 간직하며 각 지역, 부문 모든 영역, 구성원 전체의 폭넓은 연대와 결속을 이룩하고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정의를 실천하겠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으며 이 은총의 시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용산참사 희생자 등 앞서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새 하늘 새 땅' 을 꿈꿉니다.

주님, 저희 모두에게 부활의 희망을 확인해 주시고 특히 유족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투병 중에 있는 고인의 큰아들 홍일 세례자 요한 형제를 은총으로 보살펴 주소서.

이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2009.8.23. 현충원)



표지 - 캘리그래피스트 박병철

희망세상 (매월 1회 발행) 등록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서울라 10828 발행일 2009년 9월 1일 발행인 함세웅 편집위원 이호룡, 이종률, 황정욱, 현중철 편집취재 송동현, 황석선, 양지연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디자인 (주)세아미디어 인쇄처 신흥피앤피(주)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B동 2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20 http://www.kdemocracy.or.kr
e-mail webmaster@kdemo.or.kr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사업회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02 책머리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리며 기도합니다 | 함세웅



06 다시 보는 역사의 현장

자유·정의·진리, 학생운동의 원천지(源泉地)
고려대학교 민주광장 | 홍인기



14 기획연재 _ 민주시민교육 학습공동체

민주주의,
인문학을 만나 사랑에 눈뜨다 | 홍성희

20 사료이야기

자유가 들꽃처럼
정의가 강물처럼 | 어수갑

24 사업회 소식

프로젝트 시티즌 연수 참가기
연세대 기록보존소 소장 4월혁명 사료 DB 복제본 수집
사업회 임직원, 김대중 전 대통령 국회 분향소 참석
미국 시민교육 프로그램 한국에 첫 선



34 문화초대석

“내 사진이 이 세계를 향한 의문부호로 스며들기를”
사진가 노순택 | 김미영



40 게시판

44 독자마당

